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장애우 주일 메시지

균등(均等)하게 하려함이니

내가 갑자기 다리를 못쓰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집 대문을 나오며 버스를 어떻게 오를 것이며 교회 계단은 어떻게 올라와서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을까를 걱정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 찬송은 어떻게 보고 길은 어떻게 찾으며 버스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갑자기 귀가 막힌다고 해봅시다. 설교도 찬양도 못 듣고 다른 이와 대화도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에 별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도와줄 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불편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은 대개 국민의 10%로 보는 데 우리나라 정부 통계로는 1/3 내지 1/4로 축소 보고하고 80만~100만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별 혜택도 없고 검사 기준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77.9%는 재활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뇌성마비 같은 경우도 치료만 잘 받으면 85%가 치료될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취학률은 14%, 취업률은 26.7%인데 그들의 수입은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자랑하고 문명국이라고 떠들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보면 후진국이요 야만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에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장애인(병든 자)과 죄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많이 탕감 받은 자가 적은 빛을 탕감해주지 않는 그런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남의 고통은 무시하면서 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가 후천성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남의 고통은 무시하면서 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책임을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장애인은 덕을 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균등케 할 것을 가르칩니다. (고후 8:9)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자유자는 부자유한 자에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이에게 나누고 도와 균등케 하라(고후 8:13)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조금 더 불편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베푸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장애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중윤목사 (서울교회 담임)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7 전반기 선교사 파송식 장애우 주일 감사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김용진 · 황경혜 선교사 - 아프리카 말라위 / 서흥위 선교사 - 동아시아 김종일 · 백순미 선교사 - 의정부 안디옥 외국인교회

교회 헌당과 함께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 교회학교 학생 1만 명 이상 출석,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사랑의 집 건립을 비전으로 받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7년 전반기 선교사 파송식을 갖는다.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말라위로 파송되어 가난과 토속종교와 이슬람의 핍박에 고통 받고 있는 현지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김용진 · 황경혜 선교사와 동아시아로 파송될 서흥위 선교사, 그리고 의정부 안디옥 외국인 교회로 파송받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터키인)에게 복음을 전할 김종일 · 백순미 선교사들이다.

또 우리교회는 파송받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

도할 '무릎 선교사'를 찾는다. 무릎 선교사는 서울교회 성도로 전방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선교사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이다.

특히 오늘은 장애우 주일로 지키며 찬양예배를 장애우 주일 감사예배로도 드린다.

장애우 감사예배 시간에는 사랑부에서 '아담과 나'의 2곡에 맞춰 찬양과 율동을 하고 핸드벨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연주한다. 또한 예배다부는 수화로 '이 믿음 군세라'를 찬양한다.

오늘 파송 받아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이 주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많은 선교의 열매 맺도록 기도하며 또한 예배다부와 사랑부의 학생들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한다.

2007년 섬김위원회 추가임명

2007년 1/4분기 섬김위원을 당회는 아래와 같이 임명 발표하였다.

<예배위원회>

- 1부: (안내) 김영빈 유근종 김광혜 (현금)박선정 이명희
- 2부: (안내) 김영주 박정수 김옥준 송영훈 김경진 (현금)박춘자 장외남 김접숙
- 3부: (안내) 민병환 이근일 (현금) 김대웅 김은숙 황인숙 이종일 강애자 송금자
- 찬양예배: (안내) 김승록 김동진1 조미진1
- 수요일부: (안내) 나기태 백경숙
- 수요일부: (안내) 최명남
- 2부 현금 계수위원: 조동완

<교육위원회>

- 유년부: 박영숙 · 중등부: 민마리아 박혜선 조종화
- 고등부: 이지동 · 대학부: 최승환 · 디아스포라부: 장호림
- 소요리문답부: 이인선 ·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김인수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박해인 이지연 이미숙 유명신 하선경 정진문

박은호 이종욱 최영철

- 할렐루야: 권소라 박혜진 유선희 이미경 임분도 정효자 최숙자 김효숙 송혜숙 윤숙지 백수남 송경민 박천경 임우택 최재식 이준호

- 임마누엘: 구민선 김유경 김은수 김진희 정신아 박고은 정희진 허은화 김세호 박정환 이권우 이진국 윤동선 안지훈

- 베들레헬: 김대웅 박경배 양득춘 유율상 김규태 김형상 이준호 김승배 김종철 홍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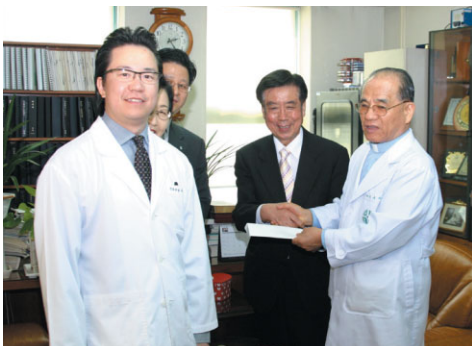
- 시 운: 김은숙 장애순 나소정 최소희 노재균 손형호 조상환 유장렬

- 갈 랍: 최세정 최홍렬 · 예루살렘: 최선에 박선주
- 은 빛: 강은희 송명곤 송인순 장성자 전수자 왕경래 진돈

<교구위원회>

- 다락방장: 5-4 이승래, 5-14 이정자, 10-10 노옥자, 11-4 양미숙, 12-9 노애리
- 부다락방장: 3-5 김옥준

실로암 안과병원에 개안수술비 전달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서울교회 목표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는 지난 11일(수) 오후 2시 30분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실로암 안과 병원' (원장: 김선태 목사, 진료부장: 주영광 집사)에 개안 수술을 위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 현금은 성도들이 고난주간 금식한 전액을 현금한 것으로 개안수술을 할 20명의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일천독-

<4독> 8교구: 김현주 권사

<2독>

6교구: 강영순 집사, 김민철 집사

8교구: 강애자 권사

<1독>

1교구: 서경학 집사, 이규희 권사, 한치종 권사, 고석규 장로, 황정임 권사, 홍순복 사모

2교구: 배은희 권사

3교구: 주혜영 성도, 홍정란 성도, 박석현성도

4교구: 이승희 권사, 홍광숙 권사

6교구: 김계순 권사, 김성은 권사, 이영옥 권사, 임순자 권사, 김경옥 권사, 김효순 권사, 최위춘 집사

7교구: 윤운식 집사, 정정희 권사

8교구: 임윤자 권사, 여현진 권사

9교구: 김은애 권사, 최양자 권사, 송옥혜 권사

10교구: 김규성 집사, 이완형 장로, 안분선 권사, 최무순 권사

11교구: 정애신 성도, 김하니 선생, 강남희 선생

12교구: 김경철 장로, 한길동 집사, 송성식 집사, 임상헌 장로, 김인순 권사, 전인화 권사

13교구: 박순복 집사, 고금란 집사, 김영미 성도

-일반-

<4교구> 변만중 집사, 유기찬 집사, 이현주 집사

2007년 1차 새가족환영회

4월21일(토) 오후5시 801호

2007년 1차 새가족환영회가 4월21일(토) 오후5시 801호에서 열린다. 이번 새가족환영회는 2006년 12월16일 이후 등록된 새가족이 초청된다.

우리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새 주기도송 연습

-4월22일 주일 찬양예배 전-

박정선 장로가 작곡한 새 주기도송을 전교인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 주기도송 연습은 다음 주일(22일)부터 두 번에 걸쳐서 찬양예배 시작전 30분간 본당에서 연습을 하게 된다.

통(通)하고 싶다

김윤수(청년부)

대학에서 실내디자인을 전공한 제가 수화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5년 전 에바다부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을 통해서였다. 이곳에서 농아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세상의 정보들을 듣길 원하는 그들의 갈급한 눈빛을 잊을 수 없어 수화를 배우게 되었다. 세상과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싶어 시작된 일이 봉사자의 자리에서 어느덧 수화통역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쉬운 길 만은 아니었다. 생소했던 법률, 의료, 금융, 노사문제, 교통사고, 농아인 가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역을 담당하며, 하루에도 나는 몇 번씩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일을 한다. 의사소통의 부재가 낳은 작은 갈등이 부모님과 20년 넘는 갈등의 골을 만든

것을 수화통역으로 메워준 일도 기억에 생생하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서 통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며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 들으며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나는 자주 농아인의 말을 떠올린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들이 그들에게는 기적의 삶인 것이다. 그들은 소리와 말은 잃어버렸지만, 두 손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

다. 나를 그들보다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경험한 소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장애라는 한계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각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자막지원을 한다면 더 이상 장애는 아니다. 지체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벽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손으로 말(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이 "OK" 할 때까지 나의 손은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 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장애인이자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자연스러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마틴 루터-

김삼연집사(사랑부 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우리교회 사랑부 친구들은 항상 기쁩니다. 때로는 교사들이 자제를 시켜야 할 정도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는커녕 누구보다도 밝게 생활합니다. 사랑부 친구들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디 사세요?"라며 스스럼없이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처음엔 당황하다가 사랑부 교사들의 노란 조끼를 보고는 웃으며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만약 장애우 부모였다면 어떠했을 까 반문해 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몇 가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력이 나빠 안경을 끼는 것도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영혼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친 마음을 위로 받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사랑부 친구들은 예수님께 기쁨을 주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일주일 내내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공과공부 시간에 갑자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의 말은 예수님이 "일주일 내내 너를 보고 싶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자신의 처지에 구속당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밝고 선한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나 식당에서 사랑부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한 마디가 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병훈 (사랑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회 사랑부와 주몽학교 고등부 3학년 3반에 재학 중인 이병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글을 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몽가족들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고등부 가족들과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인사만 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던 고등부 친구들이 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모두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며 짧았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로 지혜와 힘을 얻게 되었고 걷기 힘들던 다리에 힘도 생겨 걸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 속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세라

김미향 집사(에바다부)

예수님이 부활하신 축복의 4월입니다. 또한 장애 우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의 달에 에바다부에서는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수화찬양이 율동이 아니고 '수어'를 표현한 것이니 손짓 하나 하나에 찬양가사를 음미하면서 보신다면 훨씬 은혜가 더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축복의 자녀임과 동시에 언제나 어디서나 때로는 넘어져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에 신앙고백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때로는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와의 단절감에서 오는 절망감과 누군가

와 자유롭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없다는 상실감과 마음대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생각 한다면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우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에바다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에바다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청각장애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2007 성경 일천독대장정이 시작인가 했더니 어느새 친구약 필사본을 완성시키고 정상에 오르시어 야호!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라고 외치시며 땀을 닦는 김종자 권사님을 찾아보았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권사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의 쟁기로 76세 노년의 영혼을 깊숙이 갈아엎는, 그래서 지경을 넓히시며 말씀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시는 참으로 복 있는 권사님이시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필사했지만 침침한 눈으로 더듬더듬 쓰시기 시작하셔서 이렇게 성경 필사 완성본을 내놓으신 권사님께 박수를 보낸다.

권사님은 필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에 가슴을 치시며 여러 번 우셨

고,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져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순간순간 영광을 돌리셨다고 한다. 혹시 건강이 여의치 않아 완성하지 못할까 걱정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어 완성하셨다면서 이 일이 무엇이 자랑이겠냐고 겸손해 하셨다. 누구든지 할 수 만 있으면 필사하는 것이 우리 영육에 각인되어 쓰는 수고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의 쟁기로 노년의 영혼을 깊숙이 갈아엎고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권사님을 만난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아닌가.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 할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권사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권사님의 신앙은 자손 만 대에 길이 남겨질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다.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김종자 권사님의 믿음이 오고 오는 후손에 길이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편집부>

나눔의 집 개장

지하3층 나눔의 집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사회 구제부에서는 환난당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는 동안은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나눔의 집 물건들이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사랑을 본받아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에 기증해 주시면 고맙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눔 시간은 월요일 5시-7시, 수요일 1시-3시 일주일에 두 번 개장합니다.

동정

- 이종윤목사는 20일(금) 총회사면위원회 특별위원회를, 21일(토) 총회표준주석 집행자 모임을 각각 소집한다.
- 승진: 5교구 김인호 성도 익스피 다이터스 코리아 이사로 승진 12교구 오유록 성도 LG전자 IT마케팅팀 과장 승진
- 신대원 입학: 최요셉 성도(4교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 Div. 과정 합격 6월 입학 예정 노재균 성도(11교구)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 Div. 과정 합격 9월 입학 예정
- 개업: 임동현 집사(14교구) The 나눔 인테리어 (010-4604-9746)
- 주간식당 봉사: 모세선교회(4.15) 도르가전도회(4.22)
- 금주의 식사: 유신 집사·조상희 권사 가정 박영실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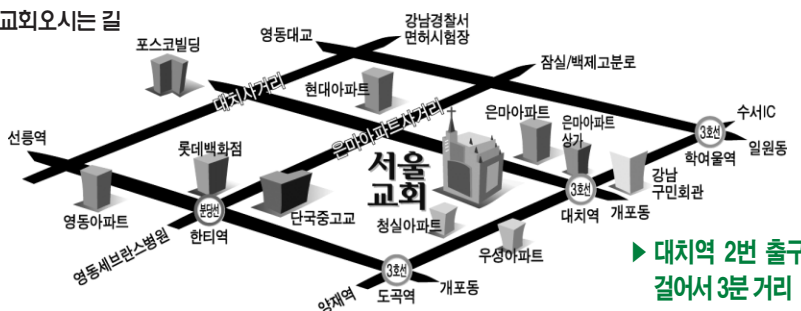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살림경로대학 열린프로그램 들을 위하여
4. 목회자 신학세미나, KIMCHI 세미나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